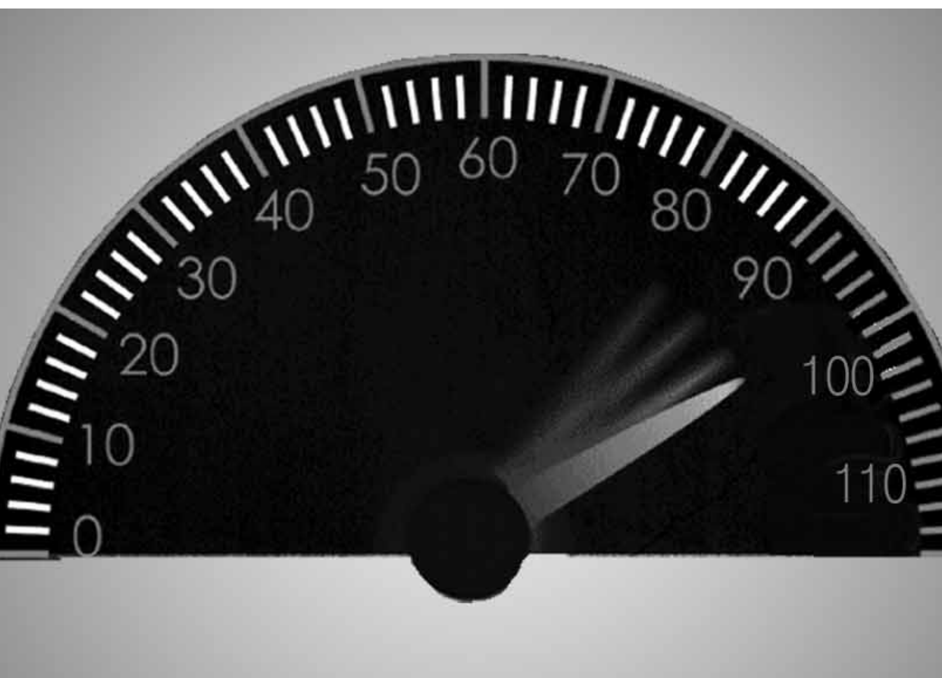
자동차 등록 2천만대

수입차·SUV 돌풍



2014 국내 자동차 이슈는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수입차 돌풍 지속, 자동차 등록 2000만대 돌파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자동차경제 12월호 특집으로 '2014년 세계 자동차 산업 이슈'를 다루면서 국내 5대 관심사로 수입차 확대 지속, 자동차 등록 2000만대 돌파, 생산·수출의 증가세 전환, 디젤 승용차 돌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국산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118만대이며 수입차를 포함한 연간 판매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까지 249만대로 집계된 올해 자동차 수출 역시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한국GM의 유럽시장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19만대 판매…전년비 25% 늘어 '사상 최대'

국내 자동차 보유 세계 15번째 亞 4번째 2000만대

성장을 꼽았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는 젊은층의 수입차 선호가 늘고,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입차 판매의 급성장세가 이어졌다. 올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나 19만대를 웃도는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40대 연령층 개인의 2000cc 미만 디젤 승용차 구입 증가세가 이어지며 수입차 성장을 견인했다. 수입차의 파상 공세에 맞서 국내 업체도 신차 출시로 맞대응, 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지난 10월30일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세계 15번째, 아시아 4번째로 2000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자동차 1대당 인구 수는 1995년 5.41명에서 2014년 2.56명으로 감소한 반면, 가구당 보유 대수는 0.65대에서 1.14대로 증가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경제 위기 등 수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신차 출시는 국내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368만대로 나타나 약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국산차 판매도 올해는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카니발과 쏘렌토, 르노삼성차 QM5 등 신차효과에 힘

디젤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 전년 대비 33.4%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51.3%나 증가했다. 승용차 전체에서 디젤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1년 약 4%에서 올해 약 15%로 11%포인트가량 뛰어올랐다.

차급별로는 SUV의 급성장이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까지 SUV는 16.9% 증가해 전체 차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런 급성장 속에 국내 자동차시장의 SUV 비중도 20%를 넘어섰다. SUV 가운데에서도 소형 SUV와 수입업체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올해 해외 자동차 시장 10대 이슈로는 ▲도요타,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빅3'의 연간 판매 1000만대 돌파 ▲GM, 포드, FCA(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등 미국 '빅3'의 중장기 성장전략 발표 ▲GM의 대규모 리콜 사태 ▲선진시장 회복세와 신흥시장 경기 둔화 ▲PCA(푸조·시트로엥그룹) 등 유럽업체의 회복 ▲SUV 시장의 지속 성장 ▲주요 시장의 연비 규제 강화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 경쟁 본격화 ▲카셰어링과 우버 등 진화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경쟁 격화 등이 거론됐다. /연합뉴스

'쏘나타' 명예회복

10월까지 9만대 판매…2년만에 10만대 넘길듯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2년 만에 판매 10만대를 넘긴 '베스트셀링카'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쏘나타는 신형과 구형,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지난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8만8485대가 판매됐다. 월평균 판매대수는 8800여 대로, 현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0만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쏘나타가 10만대 판매를 달성하면 2012년 이후 2년 만에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린 차종이 나오게 된다. 쏘나타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연속 국내 베스트셀링카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준중형 세단 아반떼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출시된 LF쏘나타가 예상 밖으로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국민차로서의 옛 명성이 퇴색되는 듯했으나 최근 LF쏘나타 택시 모델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다시 판매 1위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2012년에는 아반떼(11만1290대), 쏘나타(10만3994대) 등 2개 차종이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내 판매 1위인 아반떼가 9만3966대가 팔리는 데 그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이어져 온 10만대 클럽의 명맥이 끊겼다.

쏘나타의 10만대 클럽 가입은 최근 수입차의 공세가 거센데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급도 대형차와 경차로 양극화하면서 중형차급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벨로스터나 QM3, 트랙스 등 기존 차급을 넘나드는 다양한 차종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연간 10만대 이상이 팔리는 히트 모델이 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스바겐 파사트

차 보험금 지급 5조원

지난해 수리비 최대…수입차 1조원 육박

지난해 1년간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국산차보다 부품비가 비싼 수입차의 수리비는 1조원에 육박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년간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5조1189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2년(4조6166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수리비는 지급된 보험금은 2010년 4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5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이후에 전년대비 한자릿수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비는 3182억원(8.3%) 증가한 4조1516억원이었다. 수입차 수리비는 1841억원(23.5%) 급증한 9673억원에 달했다.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차량 렌트비 등을 합친 수입차의 지급보험금은 2072억원(24.0%) 증가한 1조70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국산차는 4조1955억원이었다.

수입차 수리건수는 전체 수리건수(473만7501건)의 7.4%(35만353건)를 차지했으나, 수리비 지급규모는 전체의 18.9%에 달했다.

전체 수리비 중 부품비(2조3460억원)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고, 공임(1조1991억원)과 도장료(1조 5738억원)는 각각 8.9%와 11.3% 늘었다. 부품비 비중은 45.8%이었고 공임과 도장은 각각 23.4%와 30.7%였다. 수입차는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의 59.8%를 차지했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급증하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차 대비 4.6배인 수입차 부품비에 대해 대체부품 사용 확대제도 도입, 부품가격정보 공개 현실화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축원룸 매 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 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융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1억5천, 융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융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융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 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 분
올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완비
주변주차가능
임대료저렴함
(보3천 130만)
상무지구 상가
5층 임대100평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상무점 · 운암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초 개강(금,토)
금 오전10시~오후 7시
토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새대
교육화 실전가능

경매교육
한국경매학원
상무지구 12월8일 개강
매주 월요 개강
월 오전10시~오후 7시
평생 최고의
스터디반 모집중
(입찰부터 매매까지)
010-6670-9800
상무점 062)382-5500
서구 치평동 1233-12번
운암점 062)513-4900
북구 운암동 434-29번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광산구 우산동 (토 23.82㎡,건54㎡) 감정가 1억3천2백 최저가 4천7백
② 서구 화정동 (토 372㎡,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건 631㎡)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건 106㎡) 감정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⑦ 광산구 신창동 (토 92.6㎡,건 185㎡)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
⑧ 서구 화정동 (토 17㎡,건 53㎡) 감정가 1억8천 최저가 2천6백
⑨ 광산구 수완동 (토 46㎡,건 148㎡) 감정가 2억8천 최저가 1억9천9백
⑩ 동구 계림동 (토 445㎡,건 1558㎡)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5천
토 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41억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정가 16억2천 최저가 11억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